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Nice to meet samyang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독자 효소 기술
저칼로리 기능성 당류로,
당신의 삶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의웅 화백, 「구름천사」, 221.9×181.8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6호 목차 —

하서(河西) 시(詩)	2
— 자연지정(自然之情), 흥취의 미학 박희병(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영남으로 가는 이광로(李光輅)에게 준 하서의 송별시	6
김재수(본회 이사장 겸 편집장)	
우정(友情),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10
하서선생 승무(陞廡)의 배경	11
— 조희문이 지은 하서집 초간본 서문을 중심으로 김진웅(전 문정공 도유사)	
하서 김인후의 기묘사림 계승과 신원운동	20
김봉곤(원광대 연구교수)	
한국어 기원, 9천년 전 중(中)요하 농경지	38
— 중앙아 유목민설 뒤집히나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40
산양회의 창립과정과 운영성과에 대한 회고	43
김용숙(전 본회 상임고문·문정공대종중 부도유사)	
필암서원 산양회 소식	47

입회비는 3만 원, 연회비는 5만 원.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하서河西 시詩

— 자연지정自然之情, 흥취의 미학

박희병(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서가 을사년 이후 향리에 은거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일찍이 퇴계는 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나는 김하서와 성균관 및 옥당에서 서로 교유했는데, 그 사람은 역域 가운데 노닐면서 물物 밖에 회포를 풀어놓았다. 중년에는 자못 시와 술에 침혹沈惑하여 애석하게 여겼는데, 들으니 만년에는 도학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

퇴계의 이 평은 하서의 생애와 그 시의 특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퇴계에 의하면 하서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획될 수 있다. 중년 이전, 즉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와 조정에서 벼슬할 때가 그 첫 시기가 되겠고, 을사년 이후 시주詩酒로 소일한 시기가 그 둘째이며, 성리학 연구에 유의한 만년이 그 셋째 시기이다.

사실 하서는 을사년 이후 10년 가까이 깊은 실의와 좌절감을 술과 시로 달랜 감

이 없지 않다. 도학의 탐구에 정력을 쏟은 것은 대체로 47세 이후가 아닌가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이러한 지적이 하서가 만년에만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중년에는 도학에 관심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의 지적은 단지 그의 생애를 크게 구획해볼 때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일 따름이다.

하서는 도학자였으므로 그의 시가 당연히 도학적 특성을 주조로 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연구자들 중에는 그의 시가 전반적으로 이로理路나 이취理趣를 보여주며, 이승理勝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하서 시 가운데 도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시들이 상당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점만을 강조할 경우 하서 시의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하서 시 가운데는 이른바 온유둔후溫柔敦厚로 포괄되는 도학적성격의 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작품들 성격 역시 상당수 발

견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점의 해명이야말로 우리가 하서 시의 본질 또는 고유성에 다가가는 데 핵심적 사안이 된다고 본다.

다시 퇴계의 말로 돌아가 보자. 퇴계는 중년 이전 하서 시의 특성을 지적하기를 “물 밖에 회포를 풀어놓았다.”라고 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방회물표放懷物表이다. 물표物表는 물외物外, 즉 방외方外를 말한다. 따라서 ‘방회물표’는 ‘방외에 마음을 붙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퇴계가 중년 이전 하서 시의 특질로 지적한 이 말은 비단 중년 이전만이 아니라 중년 이후 하서 시의 한 주요한 특질을 가리키는 말로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실 중년 이후의 하서 시를 보면 술에 취해 자신의 심회를 광달曠達하게 읊조린 것이거나, 비분강개의 정서를 숨김없이 드러낸 시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 시기의 하서 시 가운데는 도가적道家的 초월이나 도가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들도 없지 않다. 이런 시들은 모두 그 풍격風格에서 ‘온유돈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김시습金時習 정희량鄭希良과 같은 방외인 문학의 정조를 띠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가령 하서의 「혼돈주가混沌酒歌」 같은 시는 동일한 제목의 정희량의 시와 그 의상意象이나 정신적 지향이 아주 흡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서의 시를 방외인 문

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다만 그의 시가 정서적으로 방외인 문학의 전통과 연결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하서가 정치 현실에 대해 느낀 깊은 좌절과 분만憤懣, 심중의 불편과 갈등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초광楚狂’이니 광사狂士니, ‘여취여배如醉如俳’라 말한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시가 마냥 절제와 조화의 미학에만 침잠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요컨대 하서 시에는 온유돈후의 풍격을 보여주는 작품과 광달하고 호방한 품격을 보여주는 두 가지 미적 지향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서 시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때, 이 두 가지 미적 지향은 내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서는 종종 온유돈후의 미의식을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보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시인적 분방奔放의 면모에 대해 늘 자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다음 시는 하서가 자신의 시작詩作에 대해 반성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서는 시 읊기를 즐겨함이 아니라오

홀로 누운 고요를 견디지 못해설세

옳고 나니 정신이 오로지 삭막해라
완물상지玩物喪志를 이제서야 알겠
구려

- 인중에게 화답하다 和仁仲

이러한 자성은 도학자로서의 자세에 기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서의 시 창작에 레벨이 다른 두 개의 마음, 혹은 달리 표현해 마음의 두 가지 상이한 층위가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지정自然之情, 혹은 시정詩情 또는 시심詩心으로 말할 수 있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도학적 마음이다. 앞의 마음이 시인으로서의 마음이라면, 뒤의 마음은 도학자로서의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서에게 있어 이 두 마음은 어떤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하서 시 세계의 특질, 그리고 도학과 시인 가운데서 하서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은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해명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하서 시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학에의 구심력이요, 다른 하나는 순수시심純粹詩心이 추동하는 원심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서 시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있음은 이 두 힘이 긴장과 견제를 이루고 있

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서가 지닌 시심의 핵심적인 내적 계기는 흥興과 취趣가 아닌가 생각된다. 무릇 한시에서 '흥취'는 다른 미적 심리적 범주들과 함께 자못 중요한 범주이지만, 하서 시의 경우 흥취는 한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 대단히 유별나다. 그의 시는 흥취에서 성립되고 있으며, 흥취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있다. 흥취는 그의 시가 옹조려지는 바탕이며, 작품의 형식과 내용, 기격氣格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미적 범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서는 어째서 이런 도저한 '흥취의 미학'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우선 그가 천성적으로 깊은 정감과 흥취를 타고난 시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따라서 일면적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 앞부분에서의 논의를 상기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와 관련된 정치사적 현실에 대한 하서의 불만과 비분이요, 다른 하나는 호남가단 내지 호남의 누정문학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미적 정서적 지향이다. 이 둘은 하서의 타

고난 천품과 결합되면서 비상한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나 짐작된다. 현실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과 실의를 하서는 흥취의 미학으로 발산하거나 승화시켰던 것이 아닐까.

요컨대 하서의 시가 보여주는 흥취는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시대적 현실 및 그가 속한 문화적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 하서시선 『나랏말쌈』 246~251쪽에서 가져옴

유대인 어머니들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꼭 보낸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영남으로 가는 이광로李光輅에게 준 하서의 송별시

김재수(본회 이사장 겸 편집장)

1. 송별시로 유명했던 하서河西 김 인후

교유했던 여러 인물들과 이별하면서 주었던 하서의 송별시送別詩가 절창이어서 떠나는 사람마다 그의 송별시를 받고자 했다.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우정시友情詩도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 길을 떠나는 분을 애도하는 만시輓詩 또한 유명하다. 이러한 송별시, 우정시, 만시는 하서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서의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인간미가 넘치는 인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다.

하서는 1528년(19살)에 성균관에서 용재 이행이 실시한 시험에서 칠석부七夕賦로 장원했는데, 이 시가 서울에서 널리 애창되어 일약 명성을 얻었다. 이로부터 하서는 성균관에서 10여 년 가량 공부하게 되었다.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하서는 서울에 올라와서 비로소 기라

성 같은 명문거족의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 시와 술로 사귀기를 즐겼다. 시로써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들과의 교유의 깊이와 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 시험에 매달리지 않아서 합격이 늦어졌지만, 훌륭한 인물들과 교유를 통해서 학문과 인격이 성숙되어갔다. 젊은 혈기에 시와 술과 노장사상에 빠지기도 했다. 퇴계의 비판과는 달리 성리학 일변도인 교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학문적인 폭을 유연하게 넓일 수 있었다.

성균관에서 10여 년, 관직생활 3년 등 13년여의 서울 생활에서 맺은 하서의 인맥은 실로 화려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생활에서 이러한 인물들과 왕성하게 주고 받은 시가 하서문학의 중핵을 이루어 따로 떼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시 가운데 고향으로 떠나거나 관직을 받아 임지로 떠나는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송별시를 써 주었는데, 이 송별시가 너무도 유명해 장안에서 회자되었다고

한다. 퇴계 이황, 미암 유희춘, 채충길, 윤시율, 임형수 등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유독 금호 임형수와 채충길이 시 써 주기를 즐겼다. 임형수는 “왜 서로 잊었는가. 왕왕이 보거든 그대의 시가 이별의 장章에 끼어 전파되는데 내겐 유독 한 말도 주지 않으니 이 뜻은 진정 알기 어렵네 그려”라고 말하면서 이별의 시를 청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당시 하서의 이별시가 장안에 널리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수가 장차 성을 나가려고 하면서 이별의 시를 청하기에 士遂將出城求別詩

내 친구요 동년인 임금호님은
어찌 이리 바쁘게 시를 청하지
어제 와 원망스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묻기를 왜 나를 잊었는가
왕왕이 보거든 그대의 시가
이별의 장에 끼어 전파되는데
내겐 유독 한 말도 주지 않으니
이 뜻은 진정 알기 어렵네 그려
내 말이 어려울 게 무엇이 있나
그대가 청을 알아 그랬던 저지
시견詩肩이 이 저녁 내내 솟더니
마는
문득 저 방향 잃은 사람 같더군
오늘 아침 내 홀로 취하고 보니

시 생각 이다지도 발광증일까
취중의 뜻을 잠간 적어 올리어
이별의 장면을 좀 위로하리라
갑자기 생각난 건 삼청동에서
그대 함께 방울소리 들날렸어라
가을바람 소매 품을 뚫고 드는데
이부랑吏部郎 누구던가 허릴 꺾었

네
뒤를 이어 여러분 연형年兄들이 와
열 지어 서니 바로 줄을 이뤘네
맛진 술 서너 잔을 마신 다음에
중당에서 붓대를 휘둘러대고
거나하게 취하여 문을 나갈 제
행동이 어찌 그리 창황했던고
마침내 몸을 가눌 정신이 없어
거꾸로 훈도방에 실려 갔다오
이제 벌써 사 년이 지나갔는데
모임 적고 이별의 한만 길구려
어찌하면 또 한 번 서로 만나서
시름에 찬 이 애를 돌려 볼 건고
풍상이라 겨울 추위 밀어닥치니
풀과 나무 산 빛을 시들게 하네
이 손 풀면 산천이 막힐 거라
바라보며 속절없이 서성대기만.

우정이 짙게 서리어 있고 정이 넘쳐나는 하서 이별시의 전형이다. 술이 없으면 시를 쓸 수 없어서인지 아침부터 술을 들며 이별시를 쓰고 있다. 아니 그보다는 금호 임형수가 험지인 함경도로 떠날 수밖에

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기에 아침부터 술
을 들면서 이별시를 썼으리라.

2. 영남으로 떠나는 이희은李希殷 광로光輅에게 준 송별시

李希銀 光輅 將向嶺南爲詩以別

희은은 성성이 본래 소산蕭散한지
라

기격氣格은 풍진을 벗어났구려
글씨는 왕희지와 鍾유를 따라
수경瘦勁은 신의 경지 통달했느니
무식한 내 일찍이 동방同榜이 되어
상종한 적 한 두 번이 아니었다오
문장을 논하고 또 시를 읊으며
대면하면 정이 날로 가까워졌네
또 들으니 동갑이라 경오庚午생인
데

(하서집 원문에는 병자丙子생으로
돼 있으나, 잘못된 기록임. 하서가
본인의 생년을 모를 리 없으니 초서
해독 오류인 듯. 필자)

달과 날이 나보다 뒤졌다더군
형이니 아우니 서로 부르니
맺은 교분 남과 더욱 다를 수밖에
찬 등불 몇 번이나 함께 밝혔노
마주 앉아 황혼 새벽 잊어버렸네
술자리가 생기면 서로 맞았고

달 밝은 밤이면 두건 맞대고
떠들어댈 적에는 상말 섞이고
희롱할 땐 천진에 맡겨버려렸네
머너먼 저 영남길 유유도 한데
갑자기 남쪽 북쪽 사람 되다니
하늘 길어 가는 새 가뭏해지고
바다 넓어 돌아가는 고기 없구려
이 저녁 함께 남아 시름 잠기니
어찌하면 소식 자주 들을 수 있지

- 『하서집』 국여본 상418~419쪽

이 시의 주인공은 이광로李光輅(1510~1539년)는 1510년에 진사 이원李遠의 큰아
들로 태어나 22세인 1531년에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중종의 문
묘 알성시가 있어 문과회시에 바로 응시
할 수 있는 은전을 입었다. 이로 보면 그
가 탁월한 수재임을 알 수 있다. 하서는
그의 인격과 글씨를 한껏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를 보지 못한 채 30세
나이로 요절하니, 사람들은 안희의 죽음
에 비유하여 슬퍼하였다. 그는 1539년에
문과회시를 보고 막역한 절친 하서 김인
후와 이별하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애석하게도 그 해에 요절하였던 것이다.

하서의 송별시로 보면 그는 하서와 동
갑이요 진사 동방이면서 성균관에서 10여
년 가까이 사귀었으니, 얼마나 다정다감
한 우정을 나누었겠는가? 그야말로 지기
지우였다. 이 송별시에는 이러한 우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문장을 논하고 시를 읊으며, 형이니 아우니 서로 부르니 맺은 교분이 남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주 앉아 황혼 새벽도 잊어버리고 술자리가 생기면 서로 맞이했고 달 밝은 밤이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놀았다고 했다. 특히 떠들어댈 적에는 상말 섞이고 희롱할 땐 천진에 맡겨버렸다고 했다. 얼마나 친했으면 근엄한 선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상말을 주고받고 희롱했겠는가. 이 얼마나 천진무구하고 순진 난만한 우정인가? 가히 우정의 전형은 본 듯하다.

3. 밀양에 세거해온 명문 여주 이씨 후손 선비 희은希殷 광로光輅

명문 여주 이씨의 밀양 입향조는 충순위 이사필李師弼이다. 연산군 때 밀양으로 입향하였다. 이사필의 아들이 흥문관 교리 이원李遠(1479~1525년)이요, 이원의 큰아들이 바로 이 시의 주인공 이광로

이고, 그의 아우가 금시당^{今是堂} 이광진^{李光軫}(1513~1566년)이다. 이광진은 아들 경홍^{慶弘}, 경승^{慶承}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 경승을 후사가 없는 형님 광로에게 양자로 보냈다. 금시당 이광진은 순천, 홍양, 창녕 목민관을 지냈으니 전남과 인연이 깊다. 금시당 후손이 밀양시 동쪽 밀양강 양안의 세거지를 지켜 대대로 명문거족으로서 전통을 지켜 오고 있고, 형님 광로 후손들이 밀양시 북북면 퇴로리로 이주하여 여주 이씨 명문의 전통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 많은 씨족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서 김인후는 20세인 1529년에 여주 이씨와 손씨 집성촌 양동마을 출신 삼재^{三宰} 손중돈^{孫重暉}의 만사를 두 수 썼으며, 훗날 경연에서 기묘명현의 신원소청을 중종에게 올릴 때 목숨이 무서워서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으나 오직 여주 이씨이신 원로 회재 이언적 선생만이 암묵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젊은 선비에게 용기를 주신 인연도 있다.

우정友情,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고독감에 압도된 사람들은 독감예방접종 이후에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친구가 없으면 체내 염증 위험이 높아지고,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로빈 던바는 『프렌즈』라는 책에서 “친구 맺기에 성공한 인간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는 우수종(優秀種)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친구가 없는 인간은 세상에 홀로 남는 듯한 고독감을 느끼는데, 저자는 이 고독감이 주는 위험성에 주목한다. 정신의 질병인 우울증은 물론이고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저자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에 압도된 사람들은 독감예방접종 이후에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친구가 없으면 체내 염증 위험이 높아지고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됐고, 홀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은 고혈압 위험에 노출됐다. 결

국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이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친구를 사귀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 맺기가 간편해진 온라인 시대에 인간은 더욱 건강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저자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한다. 팔로우로 단 1초 만에 친구가 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은 경제적인 수는 있으나 친구와 우정이 주는 효용을 모두 누릴 수는 없다는 거다.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는 관계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정을 느끼게 하고 고독감을 줄여 준다.

친구 맺기에 디지털 미디어가 하는 일은 우정이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속도를 늦춰줄 뿐이며 우정이 계속되기를 원할 경우 때때로 그 친구를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서선생 승무陞庶의 배경

- 조희문이 지은 하서집 초간본 서문을 중심으로

김진웅(전 문정공 도유사)

1. 머리말

하서선생이 돌아가신 1560년으로부터 무려 237년만인 1797년에야 정조대왕正祖大王의 적극적인 추진推進에 의하여 비로소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셨으니 그야말로 기적奇蹟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묘에 승무陞庶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주요 문하생門下生 또는 그 학과學派를 대표할 만한 중추세력中樞勢力에 의해서 여론輿論을 형성하여 성균관 유생들을 동원動員하여 임금에게 상소문上疏文을 올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손子孫이나 제자弟子들이 정계政界나 학계學界의 주요 인물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서선생이 돌아가신지 23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며 이미 세인世人の 관심關心으로부터 까마득히 멀어진 옛날 일이 되고 말았으며 후손들도 정계나 학계에 알려진 인물이 전혀 없던 시절에 뜻 밖에 학계나 정계의 인사가 아닌 정조

임금으로부터 소청운동疏請運動이 시작되었다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정조正祖께서는 어떻게 하서선생을 알게 되었으며 또 무엇이 정조로 하여금 앞장서서 소청운동을 주도하게 하였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일 것이다.

2. 하서집河西集 발간發刊

명종明宗15년 경신庚申(1560)년 하서선생이 돌아가시고 8년만인 선조宣祖 원년元年 무진戊辰(1568)년에 처음으로 하서집이 간행刊行되었다.

초년初年시절부터 중년中年에 이르는 기간에는 비교적 유고遺稿가 남아 있었으나 을사乙巳년 이후에는 절필絶筆하다시피 저술을 하지 않았으며 시詩들도 유고遺稿를 모아 두지 않아 제자弟子들과 지인知人들에게 지어준 것들을 수집하여 우선 초간

본初刊本을 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집 서문序文은 문인門人이자 큰 사위인 월계月溪 조희문趙希文 공이 쓰게 되었다. 이 서문은 문집 서문序文이라기 보다 선생의 도학道學 사상思想과 진면목眞面目을 일대기一代記를 통하여 집약集約해 놓은 대작大作이다.

우선 서문의 첫머리에 「대도유부재지공大道有不宰之功 지덕저무적지화至德著無迹之化」 즉 「큰 도道란 다스리지 않는 공功이 있으며 지극한 덕德은 자취가 없는 조화造化를 드러낸다.」라고 하였는데 이 문집이 나온 지 8년만인 병자丙子(1576)년 5월 12일자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의하면 「조희문趙希文이 지은 하서집의 서문 첫머리가 성인聖人으로 지나치게 포양褒揚한 잘못을 마땅히 삭제削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논의論議는 이양원李陽元이 실로 조희문의 망발妄發이라고 처음 발설發說하였는데 이는 이양원의 공론公論이었다고 하였으며 또 5월 19일자에는 「조희문이 지은 하서집 서문 기두起頭에 대도유부재지공大道有不宰之功 지덕저무적지화至德著無迹之化라고 한 것은 성인에게 비기어 참람僭濫하고 망녕妄佞된다는 뜻을 최감사에게 통하였는데 이 논의는 이양원으로부터 발설한 것이다. 운운云云」하였고 성인聖人に 비기는 참망僭妄이니 삭제削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 성인聖人으로써 추존推尊한 것이니 그 그릇되고 망녕妄佞됨이 큰

데 어찌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지 않느냐고 미암眉巖에게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한 큰 도道와 지극한 덕德에 관한 얘기는 하서선생을 성인聖人으로써 추존追尊한 표현이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망녕된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며 또 용덕지정龍德之正(성인의 덕의 올바름을 지녔다) 이란 표현도 용덕龍德이란 성인聖人の 덕德을 말한 것인데 이것 역시 성인으로 추존한 것이라고 이양원은 주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조희문의 이 서문에서 하서선생을 성인으로 추존하였다고 하는 이양원의 주장이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월계공은 평생토록 하서선생을 곁에서 모시면서 선생의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선생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성인聖人に 가까운 분이라고 평소 확신하고 있었기에 서슴없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하서선생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계도啓導 하시면서 성인聖人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늘에서 받은 성품性稟은 한가지이니 노력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었다.

吟示景范仲明

文王我師舜何人

文王은 나의 스승舜임
금은어떤인고

篤信前言力去行	前言을篤信하여 힘을 다해行한분들.
今古聖愚同一性	自古로聖과愚는같은 性稟한가지라,
泥沙淘盡水澄清	泥沙를 걸러내면 물이 도로맑아지네.

이 시詩는 조월계공趙月溪公과 양고암梁鼓巖 두 제자弟子에게 읊어 보여준 시詩인데 문왕文王이나 순舜임금은 나의 스승이니 그분들은 앞선 분들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한 분들이다. 자고自古로 성인聖人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늘에서 받고 태어난 성품性稟은 한 가지이니 이 분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흙탕물일지라도 모래와 찌꺼기를 걸러내면 다시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여 마음속의 이욕利慾이나 게으름을 걷어내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하서선생은 평생토록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성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시었으니 옆에서 평생동안 보아오신 월계공의 눈에는 성인聖人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 첫머리에 하서선생의 대도大道와 지덕至德이 성인聖人の 경지境地에 이르렀다고 대명제大命題로 선언宣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서선생이 성인聖人の 경

지에 이르렀는지를 하나 하나 예시例示하면서 차분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오신 일생 동안의 삶을 조목조목 들어 설명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야말로 어찌 다스리지 않는 공功을 지니고 형적이 없는 조화造化를 나타내어 백세百世를 기다려도 의혹하지 않는 그에 해당되지 않으랴」라고 하여 앞서 선언宣言한 대명제大命題의 결론結論을 맺은 것이다.

유사이래有史以來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의 일생一生동안의 행적行蹟을 모두 살펴보면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하나쯤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며 공功과 과過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아무리 큰 학자라 하더라도 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구석엔가 흠결欠缺이 없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서선생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통하여 아무런 흠결이 없는 고결高潔한 분이다.

심지어 문묘 배향된 인물들도 거의 다 크고 작은 허물이 있게 마련인데 하서선생만큼은 조그마한 흠결도 없는 18현 가운데 유일하게 깨끗한 그야말로 도덕道德 군자君子인 것이다.

3. 일차一次 천양사업闡揚事業

선생이 돌아가시고 8년 후後 문집文集이 발간된 이후 거의 백년百年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 동안에 선조宣祖23년(1590) 장성長城 장보章甫들이 기산리岐山里에 서원書院을 건립하였으며 2년만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건립한지 7년 만에 모두 소실燒失되고 말았다. 왜란倭亂이 지나가고 인조2년 갑자甲子(1624)에 취옹공醉翁公에 의해 증산龜山에 서원을 복설復設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수해水害로 도괴倒壞되어 현 위치인 해타리海打里에 다시 옮겨 재건再建하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취옹공은 돌아가시고 맥촌公麥村公이 상경上京하여 우암선생尤庵先生을 비롯하여 동춘당同春堂 박현석朴玄石 김문곡金文谷 등 당대當代의 유림儒林 거유巨儒들을 만나 하서선생의 현창顯彰사업을 처음으로 펼치게 되었다.

당시에 맥촌공이 처음으로 우암선생에게 찾아가 제시한 자료는 하서집河西集 뿐이었다. 하서 사후死後 백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우암 역시 하서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유일한 자료인 하서집을 받아 읽어보고 우암 역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을사사화 때 절의節義를 지킨 분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던 우암으로서는 이 문집 서문을 읽

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서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성인에 가까운 추앙을 받는 인물일까 하고 상세히 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성인에 가까운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흠모欽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서선생을 현창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골의 일개 서생書生이 찾아와 가지고 온 자기 조상의 문집文集을 보고 나라를 대표하는 당시의 거유巨儒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현창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효종孝宗 9년 무술戊戌(1658)년에 서원書院 사액賜額을 청원請願하였고 그 이듬해에 몽운蒙允하였으며 그 3년 후인 현종顯宗 3년에는 왕主이 관리를 보내 사제賜祭를 하였고 현종 9년(1668)에는 증직贈職이 이루어졌으며 10년에는 증시贈諡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연속으로 천양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우암尤庵선생을 필두로 동춘당同春堂을 비롯하여 박현석朴玄石 김문곡金文谷 등이 추진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원을 증산龜山에서 해타리海打里로 이건移建하는 일을 비롯하여 박현석의 행장行狀, 김문곡의 묘표墓表, 마지막으로 우암선생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현창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숙종12년 병

인丙寅(1686)년에 하서집河西集 중간重刊에 이르기 까지 우암선생의 주도하主導下에 하서선생의 현창사업을 거의 완성完成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신도비명과 중간 하서집의 서문이다.

1) 신도비명神道碑銘

「우리나라의 인물人物들은 대개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에 있어 품차品差가 있어 이 세 가지를 다 겸하고 어느 한 면에 치우치지 않는 이는 몇이 없었는데 하늘이 우리 동방東方을 도와 하서 김선생을 종생鍾生하여 거의 구비具備했다 하겠다.」하였으며 또 마지막 명銘에 이르기를 「기극군언반이약지윤의집성既極群言反以約之允矣集成」 「군언群言을 다 궁극하고 요약要約으로 돌아오니 집대성集大成이 이 아니라」라고 하였으니 과연 하서선생이 집대성集大成하셨다고 설파說破하신 것이다.

2) 문집文集 서문序文

서문 첫머리에 말하기를 「한 절개를 지킨 사람이 있어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렸지만, 우주宇宙는 그를 동량棟梁으로 삼고 해와 달도 어두움을 免하게 되었으나 그 자취가 없어지면 질수록 그 이름은 세상에 전傳하게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고 말을 잘 하는 선비 역시 한 마디 말로 그 깊고 아득

한 묘리妙理를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하서河西 김선생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문집 서문은 조월계가 쓴 구 서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 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은 많이 바꾸어 표현하였지만 「충성忠誠은 해와 달을 꿰뚫어도 온 세상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며 강상綱常과 윤기倫紀가 이에 힘입어 서게 되고 성현聖賢의 도道가 이에 힘입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왜 그러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고 한 조월계의 말을 그대로 인용引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4. 정조 임금의 관심關心

이렇게 하서선생의 천양사업은 우암시절에 거의 완성되었고 그 뒤 다시 120여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러 세인世人的 관심關心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후손들로서도 서원의 사액賜額과 증직贈職 증시贈謚가 이루어졌고 또 서원이 이견移建되었으며 행장行狀과 묘표墓表 신도비명神道碑銘이 찬술撰述되고 문집文集이 중간重刊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다만 부조묘不祧廟를 모시는 일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학好學하신 정조正祖가 우연히

하서집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문집을 읽어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衝擊)을 받게 되었다. 을사사화 때 절의(節義)를 지킨 불운(不運)한 선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서의 문집을 읽어 보니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첫째 조월계가 쓴 서문(序文)에는 성인(聖人)에 가까운 도덕군자(道德君子)로 표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뒤 백년 후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당대의 거유(巨儒) 우암(尤庵) 선생이 추진한 천양(闡揚)사업들과 그 후 찬술한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중간(重刊) 하서집(河西集) 서문(序文)을 읽어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월계는 그의 장인일 뿐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에 인정(人情)에 이끌려 당연히 훌륭한 분이라고 과장(誇張)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서문은 일반적인 문집 서문과는 달리 하서의 일대기를 논리정연(論理整然)하게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연 왜 성인(聖人)에 가까운 도덕군자(道德君子)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여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도(大道)와 지덕(至德)을 갖춘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서문을 읽어보고 정조 대왕께서는 하서선생의 일생은 도덕군자의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성인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감명 깊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암선생 같은 거유(巨儒)가 문집하나만 읽어보고 하서의 현창사업에 솔선하여 나서서 모든 사업을 유감없이 이룩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신도비문(神道碑文)과 중간하서집(重刊河西集) 서문(序文)에 집대성(集大成)한 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암을 감동시킨 것이나 그 후 정조를 감동시킨 것 모두가 조월계공의 문집 서문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5. 소청(疏請)의 몽운(蒙允)

자고(自古)로 문묘 배향은 당시의 유림이나 정계가 주동(主動)이 되어 상소문을 올리면 임금이 이를 검토해 보고 윤허(允許) 여부(與否)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서선생의 경우 정계나 유림의 뒷받침이 전혀 없이 정조임금 자신이 주도(主導)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정조가 스스로 하서에게 심취(心醉)하여 이룩된 일이며 정조 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소청(疏請)한 과정(過程)과 그 과정에서 내린 비답(批答)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서의 위대(偉大)함을 역설(說)하면서 여론(輿論)을 형성(形成)하도록 주도(主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소청疏請이 시작한 정조10년에 박영원朴盈源 등이 올린 제2소疏에 비답하기를 「문정文靖의 조예造詣는 내가 일찍이 존모尊崇하는 바이다. 그러나 종향從享이란 큰 전예典例이다. 몇 백년을 두고 미처 못한 일을 지금 어찌 가버이 의논할 수 있으랴」라고 하였으며 정조13년 신광례申光禮 등이 올린 제5소疏에 대한 비답批答에는 「나는 문정에 대하여 광감曠感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조정朝廷 신하臣下들도 함께 아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며

정조14년 이악겸李岳謙이 올린 제6소疏에 비답하기를 「문정의 도학道學 문장文章 그리고 출처出處의 대절大節을 존숭尊崇하고 감모感慕하는 것이 어찌 너희들만 못하겠느냐마는 문묘文廟의 배향配享이란 어떠한 중전重典이나? 이에 앞선 제유諸儒의 종향從享에도 역시 처음 소疏가 있다고 곧 바로 윤희允許하지는 못하였다. 우리 조정의 방전邦典이 그러한 것은 사문斯文을 높이고 성묘聖廟를 중重히 여기는 까닭이며 내가 정중鄭重 난신難愼하는 것도 역시 이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신독재愼獨齋와 중봉重峯을 소청疏請하는 상소上疏가 올라오게 되었다. 정조의 머릿속에는 하서의 종향從享만 가득한데 뜻 밖에 하서河西를 제쳐두고 엉뚱한 소疏가 올라오니 정조正祖는 대단히 화禍가 났다.

비록 오현五賢이하 종향從享된 제유諸儒

가 지금 세상에 있더라도 반드시 문정文靖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배追配를 하려면 당연히 하서河西를 단거單擧해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지시指示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러한 기나 긴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몽운蒙允하게 되었으니 당시의 비답批答에서 「선정先正 문정文靖은 곧 우리 동방東方의 주자周子이다. 양정兩程 장주張朱는 모두 먼저 성묘聖廟에 배향配享되었는데 주자周子만 홀로 종향從享의 열列에서 빠진다면 양정兩程 장주張朱의 마음이 편便하겠느냐? 너희들의 오늘날 청請은 곧 조정암趙靜菴, 이퇴계李退溪, 이율곡李栗谷, 송우암宋尤菴의 마음이다. 윤희允許가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뜻이 그 예禮를 중重히 여기고 일을 삼가자는 데에 있을 따름이었는데 소疏가 이미 세 번이나 올라왔으니 다시 무엇을 어렵게 여기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소두疏頭 홍준원洪準源을 불러 하서선생의 도학道學에 대해 논論하면서 「김문정은 대학大學과 서명西銘의 은미隱微하고도 깊은 뜻을 처음으로 밝혀내었고 경敬을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와 도학道學 연원淵源의 정통正統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실로 유학儒學의 종장宗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깊이 감격하여 삼가 경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문정공에 대하

여 말하는 자들은 모두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같이 꼽지만 배향하는 중대한 법전法典에서는 마땅히 유학儒學과 도학道學을 가지고 논해야 할 뿐이지 절의節義나 문장文章과 같은 것은 오히려 그 나머지 일에 속하는 것이다. 김문정의 절의節義를 나머지 일에 속한다고 하면 그의 도학道學의 경지境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서집에는 도학道學에 대한 논술論述은 거의 찾아 볼수 없었지만 남겨진 시詩 가운데에는 도학 정신이 녹아들어 있어 이 시詩만 보아도 선생의 도학道學을 알아 볼 수 있어서 도학으로 문묘에 배향되는 것이 절의節義나 문장文章은 배향配享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6. 맺는 말

문묘배향 당시 내린 교서의 첫머리에 「참된 유자儒者가 천년만에 나왔으니 진정코 높이 보답報答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공론公論이 백년을 기다려 정해졌기에 이에 배향配享하는 의식儀式을 거행하는 바이니 표창表彰하여 드러내는 것은 도道를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덕德이 부족不足한 내가 임금과 스승의 직책職責을 맡고부터 유학儒學을 숭상崇尚하는 것을 지표指標로 삼았으며 계왕개내지

학繼往開來之學은 자나 깨나 전현前賢을 생각해 왔다. 유학儒學을 크게 떨쳐서 온 나라 사람들을 모두 법法에 이르도록 해야겠다는 일념一念뿐이었는데 옛날 현인賢인들의 전형典型이 멀기는 해도 법法으로 삼을 만하다고 말하면서 「경卿은 해동海東의 럽계濼溪이자 호남湖南의 공자孔子이다」라 하였고 「거의 성인聖인의 경지境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삼대三代之 인물人物이라」 하시었다.

다행스럽게도 나만큼 경卿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내가 마음을 결정決定하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어 「아! 당시當時에 뜻을 다 펴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 것이니 후세後世에 영원永遠토록 명성名聲을 남겨놓게 되었다. 선善을 밝히고 정성精誠을 다하였던 그의 행동行動을 후세後世에 본받도록 해야 할 것인바 공功을 살펴보고 덕德을 헤아려 볼 때 전대前代之 성인聖인에게 물어본들 무엇을 의심疑心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한 반교문頒教文에서 「하늘이 참된 유신儒臣을 내려 문명文明의 운運을 크게 열어 주었으니 그 은덕恩德을 크게 보답報答해야 하겠기에 배향配享하는 의식儀式을 거행舉行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옛날의 큰 유학자儒學者인 하서河西는 해동海東의 우뚝한 정학正學이었다. 천성적天性的으로 타고 난 시詩로 노래하여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담았고 성인聖인에 가까운 자질資質

에다 근원根源을 파고 들어 오묘奧妙한 이치理致를 탐구探究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시當時에 사업事業을 펴지는 못했으나 공로功勞와 교화教化는 아직도 후학後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정조正祖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도誘導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야朝野 어느 누구도 하서河西의 종향從享이 가장 먼저 추진推進되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로지 임금 혼자서 앞장서 여론輿論을 조성造成하고 하서河西를 인지認識시키면서 타당성妥當性を 력설力說하여 드디어 이루어 낸 일이었다. 이러한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이며 자손들 뿐만 아니라 조야朝野의 누구도 예상豫想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조로 하여금 이토록 하서에게 열광熱狂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서집河西集과 조월계趙月溪의 서문序文 그리고 송우암宋尤菴의 신도비와 중간문집서문重刊文集序文 등이 정조로 하여금 하서의 진면목眞面目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된 것이라고 확신確信하게 된다.

앞서 말한 이양원李陽元은 이퇴계李退溪의 제자弟子요 학자學者로서 후일 영의정領議政까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하서를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서집을 읽어보고도 하서선생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미암에게 서문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미암柳眉巖 역시 하서河西와 동문수학同門受學하였으며 사돈간으로 평생지기平生知己로 지냈지만 이에 동조同調한 것을 보면 이들은 하서선생을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이 없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암선생은 이 문집을 읽어 보고 너무 지나친 추앙推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감동感動을 받아 서원書院의 사액賜額, 증직贈職, 증시贈諡를 위시하여 각종 비문碑文과 문집文集 중간重刊을 이루었으며 후일 정조임금 또한 문집을 읽어 보고 역시 조월계공의 서문이 지나친 추앙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에 감동感動하여 문묘배향을 주도主導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서집 서문이 승무陞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때 당시에 이 서문의 앞부분을 삭제削除하여 없애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월계공趙月溪公의 공적功績을 지금부터라도 크게 부각浮刻시켜서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구서문舊序文을 더욱 더 연구研究하고 해석解釋하여 널리 세상에 알려 홍보弘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하서 김인후의 기묘사림 계승과 신원운동

김봉곤(원광대 연구교수)

1. 16세기 유교문화 확산과 기묘사화

16세기 초 조선은 성종 대 경국대전 정비 이후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1506년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대에 파괴된 유교적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훈구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조광조 등 신진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 등은 유교적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천거제인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 사림을 중앙에 진출시키고, 도교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폐지하였으며, 향촌에서도 유교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소학과 향약을 실시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신진사림의 정책은 구체제를 지향하는 훈구세력의 이해관계와 어긋나 중앙과 지방 곳곳에서 마찰을 빚게 되었다. 특히 조광조 등은 1519년 10월 중종반정 때 특별한 공도 없이 봉해진 정국공신들에 대해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

하였다. 공신 117명 중 3/4에 달하는 76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다. 위훈삭제가 이루어지면 공신의 지위가 박탈되고, 분급된 토지와 노비가 몰수되기 때문에 훈구세력들이 집단 반발하였다. 중종 또한 반정공신들에 의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대간들이 사흘간을 주청했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조광조 등은 윤허하지 않으면 모두 사직하겠다고 배수진을 치자 중종도 어쩔 수 없이 윤허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중종은 조광조 등의 신진 사림들을 제거할 결심을 하였다. 훈구세력 또한 중종과 같은 마음이었다. 희빈 홍씨의 부친 홍경주(洪景舟)는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 훈구대신과 결탁하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주초위왕(走肖爲王=조위왕=趙爲王)'이 새겨진 나뭇잎을 비밀리에 바쳤다. 이에 중종은 1519년(중종14) 11월 15일 밤 밀지를 내려 대신들을 신무문으로 입시하게 하였다.

밤 2시가 되자 홍경주는 중종에게 조광조 등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신이 삼가 살펴보니, 조광조의 무리가 서로 봉당을 지어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자는 천거하고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고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여 임금을 속이고 후진들을 피어 과격한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사람은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억눌러 국세가 기울고 조정이 날로 그릇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력이 너무 치성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결눈질하고 조심스럽게 다닐 뿐입니다.¹⁾

조광조 등의 신진사람들이 과격한 습관을 기르고 봉당을 짓고 있으나,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치성하여 날로 국사가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다. 중종은 홍경주의 상소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밀지(密旨)를 내려 조광조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의금부에 전지(傳旨)를 내려 죄를 추고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날 조광조와 김정 등의 죄를 물어 곧바로 사사(賜死)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우의정 안당(安瑯) 등이 놀라서 반대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이 대궐에 들어와 울며 통곡하자, 중종은 사사(賜死) 대신 유배형으로 바꾸었다. 이에 조광조는 능주,

김정은 금산, 김식은 선산, 기준은 아산, 최산두는 동복으로 유배를 갔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귀양을 가거나 관직에서 내쫓겼다. 얼마 후 조광조, 김정, 김식, 기준 등은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기묘사화의 여파는 컸다. 중종은 조광조 등 사람들이 주장한 공신들의 위훈삭제는 없었던 일로 되었고, 조광조 등이 실시한 현량과 등 천거제는 폐지되었으며, 미풍양속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향약(鄕約)은 혁파되었다. 과격한 풍조를 조성하고 사사로이 봉당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는 사람들이 제거되자 권신들의 행동을 제어할 방도가 없게 되고, 권신들 간에 끊임없는 권력투쟁을 낳았다. 기묘사화 당시 조광조 등을 죽여야 한다고 했던 심정과 이항(李沆) 등은 권신 김안로(金安老)와 다투다가 간신으로 지목되어 1531년 죽임을 당하였다. 또한 김안로는 김희(金禧)가 중종의 부마(駙馬)가 된 것을 배경으로 정적(政敵)이나 뜻에 맞지 않는 자를 축출하여 조야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에 중종은 대사헌 양연(梁淵)에게 밀지를 내려 1537년 11월 17일 대간 전원이 김안로를 탄핵하게 하고, 하루 만에 김안로를 죽였다.

이후 조정에서는 권신 정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1537년 말부터 사람

1) 『중종실록』 중종14년(1519) 11월 15일.

들이 신원(伸冤)되기 시작하였다.²⁾ 조광조 등과 함께 기묘사림을 이끌었던 김안국(金安國)이 다시 등용되어 사림을 이끌었고, 양팽손(梁彭孫), 이약빙(李若氷), 최산두(崔山斗) 등에게 직첩이 환급되었다. 그러나 권신 정치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기묘사림 신원운동은 사회를 일으킨 당사자인 중종이 재위하는 한, 온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었다. 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김정(金淨), 기준(奇遵) 등의 신진 사림은 중종이 직접 유배를 명하고 사사(賜死)하였기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다. 중종은 사림의 영수인 조광조를 비롯해서 김식, 김정, 기준 등은 당파를 결성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는 과격한 풍조를 이루었다는 매우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예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이었던 김안국도 1541년 4월 4일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생각을 품은 자가 혹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대의 문형

2) 신원(伸冤)은 신원설치(伸冤雪恥)의 준말로써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파직되거나 죽임을 당한 인물들에 대해 그 죄상을 없애고 복권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19세기 조선의 공문서 양식에 나올 정도로 신원은 일종의 관행이었다. 신원하는 일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되풀이되었다. 특히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보수 세력인 훈구와 개혁세력인 신진 사림 간에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극렬하게 전개됨에 따라 신원운동이 거의 1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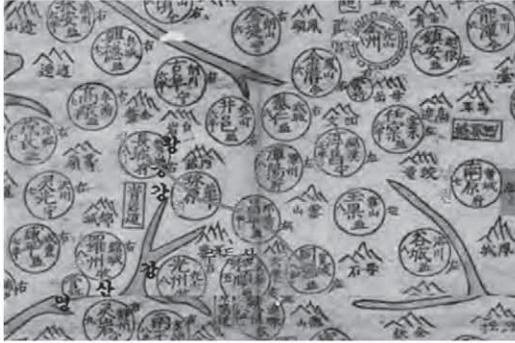
을 책임진 김안국이었지만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과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하서 김인후의 기묘사림 계승

기묘사림의 영수이자, 사회의 핵심인물인 조광조 등을 신원하자는 운동은 중종 말년에 해당되는 1543년 유교문명에 기반한 삼대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하서에 의해 경연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서는 어린 시절부터 기준(奇遵)이나 김안국(金安國) 등 기묘사림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기준이나 김안국은 조광조와 함께 『소학(小學)』을 중시한 김굉필의 문인이다. 기준은 하서가 아홉 살 때 붓을 주어 학문을 격려했고, 김안국은 1519년 전라관찰사 때 10살 된 하서에게 수 개월 동안 직접 『소학』을 가르쳤다.

하서는 18세 때에는 기묘사화로 동북에 귀양 와 있는 신재 최산두(崔山斗)를 찾아가 여러 날 머물며 최산두의 절의와 문장을 익혔다. 최산두는 전라도 광양 출신으로서 백운산 남쪽 암굴에서 독학하면서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수천 번 읽었으며, 이웃 순천으로 유배 왔던 김굉필을 사숙(私淑)하였다. 18세에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안국(金安國) 등과 교류하였으며, 1518년 『성리대전(性理大全)』



하서가 스승 최산두 찾아가는 길

을 강론할 사람 중 첫째로 손꼽힐 정도로 성리학에 대해서 뛰어난 조예를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권신인 김안로에 맞서다가 의정부 사인 재임 중에 기묘사화를 만나 화순 적벽으로 유배되었다. 최산두는 문장에도 뛰어나 유성춘(柳成春)·윤구(尹衢)와 함께 '호남삼걸'로 일컬어졌으며, 후일 동북의 도원서원(道源書院)에 제향되었다.

하서는 이러한 최산두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으며, 그 학덕을 흠모하던 터였다. 그가 최산두를 찾아가는 길은 거의 이틀이 소요되었다. 하서는 자신이 살았던 맥동 마을을 출발하여 문필천을 따라 5리 정도 내려가서 황룡강의 나루터를 건넜다. 황룡강은 장성군 북쪽 입암산에서 발원하여 장성과 임곡과 하남을 거쳐 광산구 유계동에서 영산강과 합류한다. 이 황룡강과 영산강 일대에는 당시 많은 호남 선비들이 배출되었다. 아치실의 금강 기효간, 장안리의 망암 변이중, 기산리의 석탄 이기남, 황룡의 김승조의 후손,

너부실의 고봉 기대승, 본촌의 청송 심씨, 송산의 송산 양응정, 삼도의 오점, 대촌의 박상과 고경명의 후손, 금호 임형수가 이곳에서 살았다. 하서는 진원, 담양, 창평을 거쳐 무등산 바로 밑의 지실마을로 나아갔다. 담양과 창평 일대는 면양정 송순, 석헌 유옥, 송강 정철, 사촌 김윤제, 소쇄원 양산보 등이 살았다. 특히 지실마을은 무등산 동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된다. 동쪽으로는 김윤제나 김덕령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충효동을 거쳐 광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비탈진 고개를 넘어 다시 두 갈래 길이 이어진다.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동북으로 가고, 약간 우측으로 꺾어 가면 조광조가 귀양갔던 능주로 이어진다.

하서가 살았던 맥동에서 지실 마을까지가 하루거리이기 때문에 하서는 지실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무등산 동쪽 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고갯길을 따라 동북으로 넘어갔다. 최산두는 동북의 북서쪽 웅성산 기슭에서 귀양생활을 했다. 방한 칸에 부엌 한 칸의 초라한 움막이었다. 최산두는 무오사화로 인해 순천에 유배온 한훤당 김굉필에게서 소학을 배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유배되어 이미 신동으로 알려진 하서가 자신을 찾아오자 너무나 대견하였으리라. 하서는 최산두에게서 수학하기 전 이미 사서오경을 비롯해서 제자백가와 역사책을 두루 읽어 통달하였

고, 천문지리나 여러 기예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 최산두와 하서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상견례가 끝나고 이어 학문을 강론하였다. 특별한 격식이 필요 없었다. 자유롭게 토론식 강의가 열흘간 계속되었다. 주제도 유교정전을 비롯해서 역사, 문장, 제자백가, 천문지리 등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다. 하서는 이곳에서 특별히 굴원의 사부詞賦 25편을 익혔다. 이때의 감동을 후일 최산두가 죽고 나서 올린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昔余獲見。丁千亥支
載酒黔中。相遇不疑
快談千古。囊篋旋披
二三君子。與相追隨
黃昏一試。賴此大醫
下掃衆作。獨講屈詞
二十五篇。歷歷肝脾
內激哀怨。外以華摛

제가 처음 뵈은 때는 간지로 정해년이었으니

검중 땅에 술을 싣고 가서 서로 만나 기란 없었지요

천고일을 얘기하며 쌓아논 책 펼쳤고

두세명의 군자들이 서로 함께 추종하였지요

황혼탕 짓고 나서 큰 의원 솜씨에 의존하

듯

못 작품 쓸어내고 굴원의 초사를 익혔지요
스물 다섯편의 글 하나하나 간담을 토로 하였으니

마음속에 슬픔과 원망 솟구치고 문장은 화려하네

정해년 즉 1527년 스승을 뵈고 기탄없이 경전과 천고의 역사를 말하였으며, 특히 못 작품 쓸어내고 25편의 굴원의 초사를 익혔는데, 굴원의 속마음이 끝없는 슬픔과 원망 속에 화려한 문장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굴원이 누구인가. 초나라 왕족의 신분으로서 기울어 가는 나라를 위해 회왕에게 자주 간언을 하였으나 회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간신배의 참언에 눈과 귀가 멀어 결국 진나라에 붙잡혀가 죽음을 당한다. 굴원도 초나라에서 추방을 당해 동정호洞庭湖 남쪽 먹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졌다. 바로 이러한 굴원의 역경과 슬픔, 한탄을 담고 있는 것이 초사 25편이었다. 이후 하서의 작품에는 시경 외에 굴원류의 정조가 나타나며, 하서가 가르쳤던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초사에 몰두하여 문장과 절의를 익히던 모습을 지켜보던 최산두는 하서를 ‘추수빙호秋水冰壺’ 즉 가을의 맑은 물과 얼음 담은 항아리와 같다고 하여 하서의 인품과 학문을 칭찬해주기도 하였다.



신재 최산두의 귀양지 - 동북 적벽

이후로도 하서는 직접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시축을 보내 최산두에게 품평을 받았다. 그 때마다 하서는 “내 성글고 오환하여 글숨씨 졸렬하지만 남다르게 허여하여 쇠가 자석 만나듯이 쌓인 의문 풀어주니 무지한 몸 다행일세”라고 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러나 1532년 최산두를 마지막으로 뵈 뒤 몇 년 찾아뵙지 못하다가 1536년 여름 스승 최산두의 부음을 받았다. 이에 하서는 머리에 삼베 띠 [首經]를 두르고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1년 뒤에는 제문을 스승의 영전에 올렸다. 스승이 요순의 신하를 자처하는 원대한 뜻이 있었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끝내 죽을 때까지 뜻을 펴지 못하였던 사실을 탄식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때가 찾아 왔음을 아뢰었다.

載念今日。亨嘉有基
巢狼既磔。公論在斯

士氣駸駸。續乎方籟
向來羣傑。聯翩羽儀
獨未有年。見此清夷
永歎增傷。吾道之衰

생각하면 오늘날 좋은 정치 터가 잡혀서
악한 놈들 제거되니 공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

사기도 차츰 살아나 무너졌다 이어지고
요즘 외선 못 호걸들 줄을 이어 등용됩니다
유독 수명 누리지 못하여 태평 세상 못 보
시니

한탄한들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도가 쇠
한 것을

제문을 보낸 때는 1537년 김안로 등의
훈신들이 몰락하고 규암 송인수 등이 다
시 중용되는 시기였다. 좋은 때를 못 보고
끝내 스승이 타계한 것이 못내 아쉽고 슬
펐던 것이다.

하서가 스승 최산두를 찾아 간 동북 바
로 옆에는 조광조가 귀양 간 능주 고을이
있다. 이곳 능주에는 조광조가 1519년 11
월 관아에 귀양을 왔다. 능주에는 조광조
의 문인으로서 조광조와 함께 조정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이 살고 있었다. 조광조가 능주로 귀양가
게 되자, 홍문관 교리 벼슬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고 스승의 뒤를 따라왔다. 양팽
손이 살았던 곳은 오늘날 화순군 도곡면



조광조 유배처 - 농주 관아

월곡리 일명 다라실 마을, 조광조의 유배지인 농주 관아와는 1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양팽손은 그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매일 조광조를 찾아가 밥을 지새며 베틀살이 하며 못한 공부를 다 하였다.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훈구대신이나 임금에 대한 원망도 일체 없었다.

그러나 조광조는 농주에 귀양 온 지 1개월이 채 못된 1519년 12월 16일 사사하라는 명이 떨어지고 12월 20일에는 금부도사 유엄柳淹이 사약을 가지고 유배지에 도착하였다. 양팽손도 이미 조광조의 유배지에 와 있었다. 양팽손은 이제 얼마 후면 세상을 하직할 조광조의 손을 잡고 슬퍼하였고, 조광조 역시 왕에 대한 도리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팽손 역시 얼마 후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조광조를 위로하였다. 의금부 도사가 사약을 들고 오자, 조광조는 죄명을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뜰에 내려와서 북쪽을 향해 두 번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약의 교지를

받았다. 이윽고 집에 편지를 써서 조상의 무덤 옆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긴 다음, 목욕을 하고 옷깃을 가다듬고 자리를 펴고 앉아 시 한 수를 지었다.

愛君如愛父
憂國若憂家
白日臨下土
昭昭照丹衷

임금 사랑을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집안 걱정하듯 하였네
청천백일이 아래 땅에 내리 쪼이니
밝고 밝게 충성스런 마음을 비치네

양팽손은 조광조가 조용히 사약을 마시고 운명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날따라 큰 눈이 내려 한 자 남짓 쌓이고 바람도 매섭게 추웠으나, 양팽손은 적려 밖에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하였다. 이어 양팽손은 아들들과 함께 조광조의 시신을 달구지에 싣고 50리 떨어진 쌍봉리의 중조산 기슭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매섭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양팽손은 조광조의 유해를 조광조의 고향인 용인으로 보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 조광조를 가매장하였던 중조산에 사당을 짓고 춘추로 조광조를 제향하였다. 후일 이곳에는 1570년(선조 3) 조광조와 양팽손을 함께 배향하는 죽



죽수서원

수서원이 세워졌다.

조광조와의 인연은 하서가 최산두를 뵈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 밤 머물렀던 지실마을의 양산보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양산보 역시 열다섯 살에 조광조를 찾아가 학문을 익혔다. 그 역시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참혹한 화를 당하자, 더 이상 벼슬에 미련을 끊고 지실마을에 소쇄원을 짓고 은거하였던 것이다. 하서와 양산보의 인연은 하서가 둘째 딸을 양산보의 아들 양자징에게 시집보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양자징은 사위로서 하서의 문인이 되어 혼맥과 사제관계로 깊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하서가 스승인 최산두를 찾아가는 길은 스승 최산두나 벗인 양산보 등이 모두 기묘사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종의 기묘사림의 정신이 깃든 순례코스였다고 할 수 있다. 하서가 이 길을 통해 기묘사림의 정신을 갖게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 김안국과의 재회와 인종과의 만남

하서는 1540년(중종35) 10월 1일 조정에서 실시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시험장소는 경복궁 근정전이었고, 시험관은 독권관讀卷官 김안국金安國이었다. 하서의 스승이었던 김안국은 기묘사화 때 파직되었으나, 사회를 주도한 홍경주, 남곤, 심정이 차례로 타계함에 따라 이천과 여주에서의 20여 년의 은거생활을 끝내고 중종 33년(1538) 복권되었다. 비록 현직에 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김안국이 병조와 예조판서로서 국방과 교육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대제학과 좌찬성까지 올랐다. 김안국은 또한 새 시대를 이끌어갈 후진 양성의 책임자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중종 34년(1539) 11월 3일에는 김안국이 노쇠함을 이유로 좌참찬을 사직하려고 하자 중종은 다음과 같이 그를 만류하였다.

근래 유생들이 학문을 일삼지 않으니 관각(館閣)의 당상관들이 반드시 경처럼 경학(經學)을 자기의 임무로 삼은 연후에야 허다한 유생들이 감동하여 본받게 될 것이다. 하물며 경은 자헌 대부가 된 지 이미 20여 년이며 지금 재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경의 후배이니 물론도 어찌 헤아리지 않겠는가. 사피하지 말라.³⁾

이처럼 김안국은 종종으로부터 신진 사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1년 뒤 하서가 선발된 별시문과의 책문 역시 종종의 명을 받들어 김안국이 지은 것이다. 책문에서는 도학에 관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할 것이 요구되었다. “① 기화氣化와 인사人事가 다를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② 시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③ 학자들이 노자와 불교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성리학을 흥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⑤ 송대 성리학의 계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였다. 이는 종종 치세 말년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김안국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학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인재등용 책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하서는 ① 도리가 없는 듯한 세상에서도 인사를 다하면 기화는 쇠하고 이치가 회복된다고 설파하였다. 이는 사림들이 소신을 다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② 시경은 시를 통해 성정性情의 옳고 그름을 밝혀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③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왕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인도하면 노자나 불교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④ 성리학은 성정

을 기르고 실질에 힘쓰는 학문이니 문자를 기송하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서, 성리학의 계통을 밝히고 노불에 빠진 학자들을 변화하였다. 하서는 책문에 대한 답변에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시를 통해 성정을 기르고 국왕이 도학정치에 앞장설 것과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리학을 장려할 것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책문을 낸 스승 김안국의 의도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김안국은 선발된 인물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종종 임금께 직접 아뢰었다. 종종 역시 만족을 표하였고, 하서는 권지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다.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재행이 뛰어난 문신이 임명된다. 그 만큼 하서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어 하서는 이듬해인 1541년 4월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당시 호당은 한강 물이 중랑천과 합쳐지는 두무포豆毛浦에 있었다. 마포가 서호라면 이곳은 동호였는데, 1517년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을 설치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75년 동안 사가독서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하서 역시 이곳에서 이황, 금호 임형수 등과 함께 글을 읽었고, 후일 노수신도 함께 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윽고 그는 1541년 10월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었다. 홍문관 정자는 정9품

3) 『중종실록』 중종34년(1539) 11월 13일.

에 불과했지만, 홍문관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서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고속승진이 보장되는 곳이다. 그는 1년이 못 되어 1542년 7월 정8품인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에 올랐고, 다시 9개월 후인 1543년 4월에는 정7품의 홍문관박사로 승진하면서 세자시강원설서를 겸하게 되었다. 하서는 드디어 9살 때 기준이 예언한 대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하서의 승진에는 스승인 김안국의 영향이 컸다. 김안국은 1542년(중종 37) 1월 인종의 이사^{貳師}로서 세자의 보도^{輔導}를 맡았다. 비록 한 달 만에 직책이 갈리었으나 김안국은 이후로도 역리에 밝아서 인종이 자주 뵈고자 하였고, 김안국이 서연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뜰에 내려서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이는 소학에서 가장 중시하던 스승에 대한 도리를 인종이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처럼 세자에게 우대되었던 김안국은 그해 10월 4일 병이 위중해 예조판서를 사퇴했고, 중종이 세 차례에 걸쳐 의원을 보내고 승지를 보냈으나, 끝내 1543년 1월 4일 65세로 타계하였다. 중종은 그가 죽자 이틀간이나 정무를 중지하고 몸소 상주가 되어 그의 죽음을 위로하였다. 하서 역시 만사를 지어 스승의 죽음을 조문하였다.⁴⁾

4) 『하서집』권1, 「만묘재김선생안국(挽慕齋金先生安國)」

湖邑旬宣日
棠陰仰德聲
褒名慙小友
應舉忝門生
末技煩推獎
斯文愛講明
乾坤香一瓣
悲恨激中情

호남 땅 두루두루 정치와 교화 퍼든 날
당음에서 덕성을 우러렀습니다
소우라 불러주어 부끄러웠고
과거 볼 때는 문생에 끼워주셨습니다
문장 재주를 추장함을 아끼지 않았고
사문은 강론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천지에 향불 사루니
슬픈 한이 가슴속에 격동합니다.

어렸을 때 전라감영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과거에서 발탁해 주고, 문장과 재주를 칭찬하며 자주 강론해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론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구절은 김안국이 자주 소학을 강론한 사실을 가리킨다. 이는 당시 실록의 기사와도 일치한다. 즉 기묘사화 이후 『소학』을 금기시하여 사림들이 책을 보지 않았으나, 김안국이 1537년 조정에 들어온 이후 다시 강론하기 시작하니, 사림 중에 따르는 인물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서는 스승

인 김안국과 함께 기묘사림들의 뒤를 이어 소학과 향약을 실천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것이다.

김안국이 타계하자 조정에서는 김안국의 도학을 이어갈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영의정 홍언필은 중종 38년 10월 10일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근래에 김안국(金安國)이 이학(理學)에 힘썼으나 계승할 자는 없고, 성세창(成世昌)·신광한(申光漢)·정사룡(鄭士龍) 등 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신이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번번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인재가 예전만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중국 사신이 오면 국가가 어느 사람을 시켜 응대할 것인가.’ 합니다. 경술(經術)뿐이 아니라, 사장(詞章) 또한 나라를 빛낼 재주는 몇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계승할 자가 없습니다.⁵⁾

김안국이 도학에 뛰어났으나 그를 계승할 인물이 없고 뒤를 잇는 자들이 그 재주가 도저히 김안국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경술이나 사장에 뛰어난 자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미 소학이나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경서를 읽었으며, 특히 시경에는 몰두하여 국풍은 대주나 소주를 천 번이나 읽었으니 그가 어찌 조정에서 중시되지 않

았겠는가. 하서의 김안국에 대한 제문 역시 그를 발탁해준 스승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과연 그는 3개월 뒤 세자시강원에 들어가서 세자의 스승이 되었다. 세자 또한 하서에게 걸었던 기대가 어그러졌는가.

당시 세자는 김안국이 죽은 3일 뒤 일어난 동궁전(東宮殿) 방화사건으로 무척 곤경에 처했다. 1544년 1월 7일 삼경에 동궁전에 불이 일어나 동궁전이 모두 불타고 이웃 건물에도 번져갔는데도, 그날 저녁 입직한 당상관이나 낭관, 환관, 수직군사들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혼잡한 틈을 타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궁전의 물건을 훔쳐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동궁전에서 일어났고, 세자가 창덕궁으로 처소를 옮겼지만, 끝내 방화를 일으킨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동궁이었던 인종은 “조종조부터 1백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집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를 만들었으니, 하늘이 이런 꾸지람을 내린 것은 실로 내 잘못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탓으로 돌리었고, 끝내 이 사건은 적당히 담당 관리를 추고하는 선에서 일단락이 되었다. 범인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끝까지 추국한다면 큰 옥사(獄事)가 일어날까 두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단지 주방 여종에게 매를 치고 관사의 고역(苦役)을 맡도록 한 것이 고작이었다.

5) 『중종실록』 중종38년(1543) 10월 10일

인종은 1515년(중종 10) 중종과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모후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옛새 만에 타계하였다. 이에 인종은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 밑에서 자랐다. 문정왕후는 처음에는 인종에게 극진했으나 경원대군을 낳은 이후부터 인종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종은 더욱 부왕인 중종에게 의지했고, 중종 역시 인종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실록에 따르면 인종은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했으므로 동궁東宮에 있는 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⁶⁾라고 한다.

하서는 이러한 인종에 대해 잠룡潛龍의 덕이 천고에 뛰어나서 후일에 요순시대의 정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계도啓導하였고, 인종 또한 하서의 학문과 도덕이 훌륭함을 알고 정성스런 마음과 예를 다해 자주 소대召對하니,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水魚之交, 서로 간에 성인의 치세를 기약하였다. 유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밀을 총괄하는 군왕과 의리로 합치되어야 한다. 하서는 동궁시절 세자의 스승이었고 인종 또한 하서에게 기댄 것이 지극하였기 때

문에 하서의 경륜은 인종을 통해 활짝 꽃을 피울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하서는 세자에게 요순시대의 왕도정치를 말하였다. 왕도정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어진 마음 즉 인仁과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의義를 토대로 한다. 이러한 인의정치는 백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이어 떳떳한 도리를 교육해야 가능하다. 이에 하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세움을 낮추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각각에 알맞은 산업에 종사하고, 사대부들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치와 물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서는 기자의 흥범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흥범은 우禹왕이 요순堯舜 이래의 정치사상을 집대성集大成한 것으로서, 하늘의 운행원리에 따라 임금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 어진 정사와 덕을 베풀면 그 효험이 천하를 태평케 된다는 정치원리를 9개 범부로 설명한 것이다. 이 흥범은 은나라의 성인 기자를 통해서 주나라 무왕에게 전해짐으로서 천하에 알려졌다고 한다. 후일 하서는 을사사화 이후 「양광위노론伴狂爲奴論」을 짓고 스스로 기자와 같은 인물로 자처하였고, 사위인 고암 양자징에게 「흥범설시작괘지도洪範揲著作卦之圖」를 가르쳤다. 「흥범설시작괘지도」는 계의

6) 『인종실록』, 총서(總序).

稽擬, 즉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 주역의 시초점을 쳐서 나온 궤사를 홍범의 원리로 풀이하여 해결한 글이다. 일찍이 스승인 김안국이 천문과 주역에 뛰어나 세자의 이사가 되었는데, 하서 역시 스승의 뒤를 이어 주역에 뛰어났고, 정치상에도 주역점을 통해 홍범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서는 1543년 4월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겸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設書로 임명되어 세자에게 학문과 도덕을 강론하게 되었다. 당시 세자의 지위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조정의 신료들은 세자를 보호하였던 대운과 문정왕후의 소생 경원대군으로 세자를 교체하려는 소운으로 나뉘어져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고, 1543년 1월 7일에는 세자의 거처하는 곳이 모두 불이 났는데도,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이 미궁에 빠져 들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치세의 방책을 제시할 인물이 필요했는데, 경학과 문장뿐만 아니라 주역에 능한 하서가 세자의 스승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하서는 세자가 난국을 돌파하고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어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도리를 실천해주기를 바랐다. 또한 시초점을 쳐서 군왕이 황극皇極의 중심에서 서서 어떻게 만기萬機를 총람해야 하는지를 풀이해 주었다.



이에 세자는 점차 하서의 높은 학문과 고결한 인품에 깊이 끌리어 중국 고대의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정치에 대한 꿈으로 대화가 밤새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는 묵죽도 한 본을 하서에게 하사하였다.

대나무가 골짜기 바위 위에 솟아나 곧게 하늘을 떠받치는 그림이었다. 하서는 세자의 뜻을 알고 조용히 붓을 들어 묵죽도 좌측 하단에 자신의 뜻을 밝혔다.⁷⁾

7) 김인후, 『하서집』권5, 「응제시, 세자가 그린 묵죽(應製題睿畫墨竹)。」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

뿌리 가지 마디 잎새 모두 다 정미롭고
굳은 돌, 벗인 양 주위에 둘러섰네
비로소 알았네. 성스러운 우리 님 조화를
짜하시니
천지와 하나 되어 어김이 없는 것을

대나무의 뿌리와 가지 잎새 마디마디, 거기에 바윗돌을 짝하여 그려 넣었으니, 우리 님 조화를 아시어 천지와 하나 되어 어기지 않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다. 훗날 선조 때의 문장가 상촌 신희는 세자인 인종이 하늘이 내린 성인임을 이때 하서가 알아보았는데, 1년이 못되어 승하하였으니 천명이 어찌하여 어긋났는가라고 탄식하였다. 또한 영조 대의 문신인 초천 김시찬은 세자가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돌을 그린 것은 하서에게 장래에 닥쳐올 일을 먼저 알려주어 지조를 변치 않고 다른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세자는 또한 하서에게 『주자대전朱子大全』 한 질을 하사하였다. 121권이나 되는 거질이었는데, 1543년 간행되자마 하사한 것이다. 도학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라는 간절한 바램이었다.

4. 하서의 기묘사림 신원운동

하서는 1543년 6월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知製教兼經筵檢討官으로 승진하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먼저 그 일은 중종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서는 최근에 일어난 조정의 변란과 각종 재앙은 중종이 어진 인재를 등용할 마음이 없고, 풍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규정하고, 중종이 사의私意가 없이 시비를 분명히 하고 풍습을 바로잡아야 변괴가 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 시국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규정하고서, 공정한 시비와 풍속교정을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하서는 억울하게 죽은 조광조 등을 신원하고,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게 된다.

하서는 1543년 7월 20일 중종과 대면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근래 형편없는 소인(小人, 심정, 이항을 가리킴)으로서 죽어도 죄가 남을 자들은 모두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일을 잘못 행한 적은 있어도 그 본심만큼은 나라를 속인 적이 없는 이들(조광조, 김식, 김정, 기준 등을 가리킴)은 주상의 은혜를 여전히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숭상하던 글(『소학』과

『향약』)도 모두 폐기되어 쓰지 않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⁸⁾

죽어도 죄가 남을 심정沈貞과 남곤南袞 등은 복직되었는데, 나라를 위한 인물인 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김정金淨, 기준奇遵 등이 복권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향약과 소학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전면 실시되지 않고 있으니, 더더욱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서의 발언에 대해 중종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에 하서는 이틀 뒤인 1543년 7월 22일에 다시 조광조 등의 신원과 향약실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 등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이지 않았으니 어찌 신원시키지 않느냐는 것과 소학과 향약은 ‘성현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중종은 향약과 소학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조광조 등은 나라를 그르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하서는 조정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해 8월 장성 맥동으로 내려왔다. 이때 시강원 필선이었던 퇴계 이황은 다음과 같이 송별하였다.

我昔與子遊泮宮

一言道合欣相得
君知處世如虛舟
我信散材同樗櫟
富貴於我等浮雲
偶然得之非吾求
秋風蕭蕭吹漢水
海山千里君先去

내가 지난날 그대와 더불어 반궁(泮宮, 성균관)에 유학하였을 때

한마디로 도가 맞아 기꺼이 서로 사귀었지
그대는 세상살이가 빈배와 같음을 알았고
나는 저력(樗櫟)처럼 쓸모없다 믿었네
부귀영화가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은 것
우연히 얻었을 뿐 내가 구한 바 아니었네
가을바람 소슬하게 한강 물에 부는데
바닷길 산길 천리에 그대 먼저 가네 그려⁹⁾

24세(중종28, 1533)에 성균관에 입학하였던 하서가 33세의 퇴계 이황을 만나 서로 뜻이 맞았다. 아직 기묘사화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이라서, 경전공부보다는 놀이와 사장에나 관심을 쏟았던 때였다.

선생은 일찍이 성균관에 유학(遊學)하였다. 그때는 처음으로 기묘사화를 겪은 때이라, 사람들은 모두 도학(道學)을 꺼리고 날마다 실없는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습성

8) 『중종실록』 중종 38년(1543) 7월 20일

9) 『퇴계선생연보』권1, 43세(1593) 8월.

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만은 홀로 점잖게 몸을 가져서 동정(動靜)이나 언행이 한결같이 예법을 따랐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선생이 사귀는 이는 오직 인후(麟厚) 김하서(金河西 자는 후지(厚之) 한 사람뿐이었다.¹⁰⁾

그러나 퇴계 이황의 성균관 유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하서는 시를 지어 벗이 떠남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다 1541년(중종 36) 여름 하서와 퇴계가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고 호당에서 재회하였는데, 이번에는 하서의 조광조 등의 신원소청이 되려 중종의 노여움을 사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퇴계 이황은 하서가 빈 배 되어 멀리 천리 길을 먼저 떠나나나도 뜯구름같은 부귀영화 버리고 곧 뒤 따르리라고 송별하였던 것이다.

하서는 그해 12월 옥과현감을 제수받았다.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하서는 『박회양부(薄淮陽賦)』를 지은 것을 보면, 옥과현감 제수가 본인의 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하서는 한무제를 올바르게 보필하기 위해 간하다가 도리어 노여움을 사서 회양태수로 쫓겨난 급암(汲黯)의 처지와 자신이 너무나 닮았음을 다음과 같이 노

래하고 있다.¹²⁾

使格君之一念
終委廢於僻地
臥十年而不起
環未見夫一賜
君非薄乎淮陽
帝待君之斯薄

임금을 바로잡는다는 그 일념 때문에
끝내 벽지에 버려져서
십년을 누워 지냈는데 기용되지 못하여
한 번도 사환(賜環)을 못 보았구려
그대가 어찌 회양을 박대했겠소
황제가 바로 그대를 박대한 거지

급암을 박대하여 회양태수로 내친 뒤 10년이 넘도록 다시 조정에 부르지 않은 것처럼, 자신도 임금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끝내 버려져서 옥과현감으로 내쳐졌다는 것이다.

이후 조광조 등의 신원은 1544년 3월 27일 하서와 같이 근무했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세형(宋世珩)에 의해서 다시 거론되었다. 송세형도 조광조 등이 개혁을 추구하다가 과격해진 것이지 본심은 선했다고 하고서, 조광조가 죽음에 임해서 임금 아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

10) 『퇴계언행록』 권1, 學問

11) 김상집, 『박회양부(薄淮陽賦)』, 『하서 도학과 문학』 31호, 2018년.

12) 김인후, 『하서집』 권1, 박회양부(薄淮陽賦)

치 않았다는 절명시를 아뢰었다. 그러나 중종은 조광조는 죄인의 우두머리이므로 논할 수 없다고 또 다시 물리쳤다. 하서에 의해 촉발된 송세형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위 때에는 결코 조광조 등의 신원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5. 하서의 기묘사림 신원운동의 역사적 의의

조광조 등의 신원은 결국 중종이 죽고 하서의 가르침을 받은 인종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이루어졌다. 인종은 대운과 소운의 깊은 대립과 사회의 조짐 속에 죽기 하루 전날 조광조 등의 신원을 유언으로 당부하였다.

조광조 등의 일은내가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으나 선왕(先王)께서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고 천천히 하려 하였다. 이제는 내 병이 위독하여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비로소 유언하여 뒤미처 인심을 위로하니, 조광조 등의 벼슬을 일체 전일의 중의(衆議)처럼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하겠다. 현량과도 전에 이룬 대로 그 과를 회복하여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¹³⁾

선왕인 중종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광조

를 신원하지 못했으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조광조를 신원하고 현량과도 복설하려고 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이 타계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또 다시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 이 때문에 신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선조 초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 등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조광조가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됨으로써 신원조치가 마무리되었다.

하서의 기묘사림 신원운동은 역사적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사림의 대의명분과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중종은 재위 후반기에 기묘사림을 대부분 복권하였으나, 조광조와 기준 등은 끝내 신원하지 않았다. 이들이 과격한 풍조를 이루고 봉당을 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서는 상소를 올려 조정의 재앙과 인륜의 변괴, 천재지변이 오늘날보다 극심한 적이 없는데, 이는 모두가 어진 인재를 가까이하지 않고, 풍속이 퇴폐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조를 일신하려면 조광조 등을 신원하고 향약과 소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주장하기를 꺼려하는 상황 하에서 하서가 목숨을 걸고 조광조 등의 신원을 주장하였고, 결국 인종에 의해 조광조 등이 신원됨으로

13) 『인종실록』 인종1년(1545) 6월 29일.

씨, 사림의 대의명분과 조광조, 하서로 이어지는 사림의 도통이 확립된 것이다.

둘째, 광명정대하고 의리에 기초한 정치상의 도리를 확립하였다. 하서는 기묘사화가 중중이 어진 인재를 가까이해야 하는데 사림들의 주장을 널리 받아들이는 도량이 적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때문에 아첨하는 간신들이 발호하여 정치를 농간하였다는 것이다. 하서는 인륜과 국가에 재앙이 일어나는 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광명정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분명히 밝히며, 풍속을 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하서의 주장은 중중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면서 세자인 인종을 성군으로 보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광명정대하고 의리에 기초한 새 시대의 도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유교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하서는 김굉필과 김안국을 통해 소학 중시의 전통을 이어서 사람마다 예의염치를 기르고, 향약을 실시

하여 곳곳마다 미풍양속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향약은 중국 북송의 여씨 형제들이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네 가지 규약을 통해서 유교문명으로의 대전환을 꾀한 것이다. 하서는 기묘사화 이후 소학과 향약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소학과 향약의 실시를 '성현의 일'로 규정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진관 이언적(李彦迪) 역시 풍속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으나 위로부터 교화를 밝히고 인륜을 두텁게 하면 밑에서도 저절로 보고 느껴 변화하여 날로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하서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중중 역시 소학과 향약의 실시를 곧바로 의논하게 하였으니, 하서의 소학과 향약 실시 주장이 유교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 기원, 9천년전 중중요하 농경지

— 중앙아 유목민설 뒤집히나

독립연구팀에 한-중-일-러-미 참여 공동연구
결과 네이처에 발표

주어-목적어-술어 어순 알타이어족 언어학-
고고학-유전생물학 등 분석

“공통기원 언어 3,000개 요하로 연결, 쌀 농업
한반도로 유입돼 일대에 도달, 유전체 분석 결과
공통요소 발견”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의 ‘뿌리 언어’
로 여겨지던 ‘트랜스유라시아어족(알타이
어족)’의 기원이 약 9000년 전 중국 동북
부 요하(랴오허) 일대 농업지역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 4000년 전 중앙아
시아 유목민이 이주하면서 언어가 퍼져나
갔다는 기존의 ‘유목민 기원설’을 뒤집은
것이다.

마르티너 로베이츠 독일 막스플랑크 인
류사과학연구소 고고학부 교수 연구팀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연
구진이 대거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이 같
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1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성하 한국외국어

대 교수, 김재현 동아대 교수, 안덕임 한
서대 교수 등 국내 연구진도 공저자로 이
름을 올렸다.

트랜스유라시아어족은 동쪽의 한국, 일
본으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 서쪽의 터
키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질
러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주어-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모음조화, 문법상 성별 구
분이 없는 등 공통점이 있다. 방대한 규모
의 언어집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전파
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목민 가
설’이 힘을 얻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트랜스유라시아어족
의 기원과 전파 양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언어학, 고고학, 유전생물학 등 세
분야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고대의 농
업 축산 관련 어휘를 분석하고, 신석기 청
동기시대의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 고대 농경민의 유전자분석결과와
비교했다.

언어학적으로 기원이 공통된 언어 3,00
0여 개를 모아 계통수를 그려나간 결과,

9000년 전 요하 일대 기장 농업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석기 때 원시 한국-일본어, 원시 몽골-통구스어 등으로 분화됐다. 청동기에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통구스어, 튀르크어 등으로 분리되면서 당시 새로 도입된 쌀, 밀, 보리 같은 작물 단어와 낙농업, 실크 등의 언어가 추가됐다.

고고학적으로 255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작물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분석하니 약 9000년 전 요하 일대의 기장 농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한 분류는 5500년 전 한반도 방향으로, 나머지 한 분류는 5000년 전 북쪽 방향의 아무르강 유역으로 퍼져나갔다. 쌀 농업은 중국 라오둥과 산둥 지역에서 3300~2800년 전 한반도로 유입됐으며, 3000년 전 일본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00~300년 전 한국, 일본, 아무르강 유역에 살았던 19명의 유전체와 유라시아와 동아시아의 현대인 194명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비교했다. 그 결과 트랜스유라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유전적 요소가 발견됐다.

연구팀은 세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농경문화와 함께 언어의 확산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농경민 가설'을 제시했다. 특히 유전적 증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인이 트랜스유라시아어족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일부 학설도 반증했다. 또 육지도에서 나온 고대인의 DNA를 분석해 중기 신석기시대 한국인 조상의 유전자가 일본 토착민인 조몬인(縄文人)과 95% 일치한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했다.

- <동아사이언스> 서동준 기자 글에서 가져옴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이승렬 지음 | 그물 | 값 35,000원

의회주의 밑돌 놓은 온건, 점진, 중도에 주목하라

역사학자 이승렬의 '통합사관' 근대이행기 상층지주에 주목,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기원 풀이,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갈림길이 있었고, 20세기 중반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있었다. 이 갈림길들을 헤쳐 온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체와 자주'라는 주관적인 의지의 영역을 중심에 놓는 경향이 있다. '비타협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민족운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한정짓는 접근도 그런 경향의 산물이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은 추상의 세계를 넘어서며, 훨씬 건조하기 까지 하다.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함석헌의 말처럼, 해방은 결국 한국인의 힘이 아닌 국제질서의 결과물으로써 찾아오지 않았던가.

한말과 일제시기 사회경제와 식민정책

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이승렬은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에서 한국 근대사를 읽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지은이는 전작 『제국과 상인』(2007)에서 19~20세기 한국에서 성장한 부르주아지 세력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책에서는 이들 '상층지주' 세력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밝히고, 이들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구실을 담당했는지 파고들었다. '의회민주주의'를 한국 근대사의 핵심 열쇳말로 삼고, 이 유산을 만들었던 온건한 민족주의 세력의 출현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 국내와 동아시아 4국, 세계 질서 등 세 가지 층위에서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은이의 분석은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배링턴 무어(1913~2005)의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1966)에서 무어는 전근대 사회가 근대로 진입할 때 상층 지주와 농민의 정치적 역할에 따라 민주주의, 파시스트, 공산주의로 분

기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단선적인 발전론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회적 힘들의 작동과 결과를 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보며, 지은이는 개항 이후 한반도에서 상층 지주 세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읽어낸다. 조선왕조의 중심지인 기호 지역 세력은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종속된 관료제에 기대고 있었으나, 관료제의 간섭이 적었던 호남 지주 세력은 ‘농업의 상업화’를 꾀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공업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성격의 ‘진취적’ 지주로 성장해 갔다. 중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되면서 이들은 구체제에 묶인 기존 지주 세력을 대체하여 새로운 사회세력이 됐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근대 이행은 두 단계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이 기존 관료적 상업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1단계 근대화라면, 이것이 실패한 뒤 ‘진취적’ 지주세력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근대화는 2단계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이들 새로운 지주 세력에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세력, 천도교 세력이 함께 연결되어 이룬 협력적 거버넌스, 시민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력을 대표하는 이는 전라도 고창 출신의 김성수(1891~1955)였다. 그는 지주 경영으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서울로 올라와 학교(중앙학교)와 근대적 기업(경성방직), 언론사(동아일보사)를 경영

했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자치론’ 등 타협적인 민족운동을 주장하다 친일행위를 했으며, 해방 뒤에는 남한 정부 수립 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렇다면 김성수 같은 새로운 지주 세력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지은이는 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본다. “제국주의 세력과 급진적 민족주의 사이에서 다원적 정치제도를 구성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동아시아 4국에서 상층 지주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로 성장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중국과 북한에서는 상층 지주 세력이 소멸하고 전체주의가 등장했다. 관료제가 근대화를 이끈 일본에서는 의회주의를 도입했지만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독립은 미약하다. 이와는 달리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의회주의를 추구해온 세력이 있었던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갈등 협력할 수 있는, 비교적 다원적인 정치 영토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의 존재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는 농지개혁이란 진보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승만 독재를 막아서는 데에도 거점이 됐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민족, 자본주의 진영의 극우적 노

선'이 아니라 여러 계통의 정치 세력이 통합된 중도노선이 실현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상태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의회주의를 토대로 한 공화정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세계사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흐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에 계기를 마련했듯, 19세기 초 빈 회의에서 형성된 '세력균형' 패러다임은 20세기 초 파리강화회의에서 시작된 '집단안보' 패러다임에 의해 해체되고 있었다. 당시 세계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참여가 한반도 해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소련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실력양성'을 도모한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이란 변수에 기대를 걸었다. 해방 뒤 한국에 찾아온 것은 국제연합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세력균형 체제의 이중적 질서였다. 지은이는 당시 필요한 것은 이 이중적 질서를 끊어낼 "한국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였으나, 서로 끝없이 분열하기만 한 좌우 급진적인 세력들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대중을 이념 갈등의 소모품으로 소비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 대목에서 지은이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드러난다. "내적인 힘보다 외세라는 변수가 때로는 역사적 결정요인이 되었던 한국 근대사의 특수성은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하는 역사 인식의 원인이다. 정의를 독점하려는 도덕적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때문에 민족주의가 분열되고 분단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비타협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이고 비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를 유일한 '역사의 도덕'으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선택적 기억'에 기대는 파당적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끝없는 분열만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은이는 '경제성장', '발전'에 매달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비타협', '민족 정통성' 같은 추상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는 민족사학 모두 "단선적 발전사관"에 머물고 있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적 토대로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떠받친 점진주의에 대한 재발견은 급진적 좌파와 우파의 역사 인식의 싸움터를 생산적인 경쟁과 공존의 무대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한겨레> 최원영 기자

산양회의 창립과정과 운영성과에 대한 회고

김용숙(전 본회 상임고문·문정공대중증 부도유사)

1. 들어가며

최근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필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10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사업추진’이라는 비전하에 ‘필암서원을 한국의 선비문화의 본향으로 삼아 세계화로 나아가고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문정공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과 묘소, 신도비, 통곡단, 어사리 등 하서와 관련된 모든 유무형有無形의 소재素材를 발굴 재조명하여 선비 문화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개가 무량하였다.

필암서원이 수백년 동안 ‘인류 보편의 정신과 가치’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모든 인류에게 훌륭한 선현先賢의 발자취와 정신을 본받고 계승발전 시키도록 선도해 온 업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큰 자랑으로 여기는 바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필암서원 역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후손들의 각고의 노력

과 장성군을 비롯한 국가적 행정적 시책이 잘 융합된 결과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특별히 자自·타성他姓을 불구하고, 오직 만고의 사표師表이시자, 선비의 표상으로 추앙 받으시는 하서선생을 흠모하여 기리고, 이어받자는 의지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양회山仰會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선현의 현창사업과 정신계승에 헌신해주신 경향 각지의 회원님들께도 재삼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양회의 설립 취지와 그간의 경과를 반추해봄으로써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회로 삼고자 본고를 쓰게 되었다

2. 산양회 창립과정

하서 김인후선생은 천우天祐하여, 이동我東에 종생種生하시니, 도학 절의 문장을 탁락卓犖하게 검비하여, 청구靑丘를 휘황하게 밝히시고, 동국 18현의 한분으로 문

묘文廟에 종향되시어, 조선시대 열성조 군왕君王과 동서고금의 석학현인들이 백세의 종사宗師로 경모 숭앙하니, 전국 유림들이 경탄 감개하였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선생의 사원인 필암서원이 소유한 제향전답祭享田畝이 분배되어, 춘추향사 봉행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전국 유림들이 고산양지高山仰止의 뜻을 모아 회봉 안규용 晦峰安圭容 장보章甫를 대표로 삼아 산양계를 결성하여, 벼일두一斗 내지 수두를 자진 출연하여, 서원 제향답 24두락을 구입 봉정함으로써 서원 운영 및 향사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당시 전후 혼란기에 금싸라기 같은 정조正租를 출연한 산양계원 제위, 사암 변시연공과 본손 김영중공의 노고가 많았으며, 본손 수당 김연수秀堂 金季洙 삼양사회장께서 벼 100섬을 출연하였다. 그러나 산양계는 반세기가 지나자 활동이 중단되고, 계원 대다수가 고인이 되어 안타깝게 여겨 오던 중, 필자인 본손 김용숙(당시 필암서원 별유사)이 분연 발의하여, 고흥군 원장을 비롯한 유한상, 박래호등 필암서원 임원, 그리고 본손 김병주 도유사, 김병훈 산양회 총무등과 여러 번 협의하여 산양계 정신을 계승하고,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현대에 재조명 할 유회 儒會를 결성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후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후보를 내

정한 후 취지문등 전국의 뜻있는 장보에게 발송하여, 2001년 8월 22일 드디어 필암서원에서 산양계 재 발족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경향각지에서 250여 명의 장보들이 운집한 가운데 ‘하서선생을 백세종사로 숭앙하고, 필암서원을 하서 성학聖學 수련의 도량으로 영구 보존 발전시키며, 하서선생의 도학 절의 문장을 연구 계발하여, 사도斯道를 계승 발흥한다’는 결의를 선포하면서 산양회가 재 창립되었다.

3. 산양회 조직과 운영

2001년 8월 22일 초대회장에 차산 안진오次山 安晉吾 장보를 선출하고, 고문에 고흥군등 24명, 부회장 김병훈등 6명, 총무 김장수, 재무 양희택, 감사 김병근 등 2명, 연구위원에 김재수등 6명이 선임되었고, 회원이 252명이었다. 매년 정기 및 임시총회 4회, 학술강연회 4회 개최, 산양회보 2회 발행키로 하여 본회의 기반을 견고히 하였다.

회칙에 따라 입회비 3만 원, 연회비 4만 원과 독지가 성금으로 약 2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여기에는 본손 남계 김상준南溪 金相駿공, 모암 김노수慕巖 金老洙공, 송석 박종달松石 朴鐘達공, 삼면 고영두三勉 高榮斗공,

유당 최상옥(裕堂 崔相玉)공 등의 공로가 컸다.

2003년 12월 2대 회장에 박종달 장보가 선출되어 4년 동안 재임하였고, 회원이 350여 명에 이르렀다.

2007년에 4대 회장에 오인균(吳仁均) 장보가 선출되어 재임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정환담 박사, 현재는 김재수교수가 재임하며 본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11년 8월 본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오인균 이사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서원유회로 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모든 산양회원들이 선현을 기리고 본받아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선비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지금까지 본회를 이끌어온 관계자 제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4. 하서선생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학술강연

2001년 3월 춘향제에 정병연 박사가 ‘하서 김인후의 성리학’을 2001년 추향제에 유승국 박사가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을 청절당에서 강론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춘추행사 후 매년 학술강연이 있었다.

2001년 8월 22일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안진오 회장의 강연을 효시로 김충렬, 윤사순, 금장태, 송준호, 백승종, 오종일, 박병호 박사 중국 해광우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의 수십 회에 걸친 강연회가 필암서원과(광주향교, 전주덕진구 대강당, 장성군청 회의실, 성균관 대강당) 등에서 열렸다. 연인원 1만2천여 명의 유림과 학생들이 청강하여 선생을 드높이고,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 되살려 내려 노력하였다.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2009년 9월 20일 장성군청 회의실, 2010년 성균관대 강당에서 유승국 원장 주재로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국제학술발표회를 2회 개최하여 국제화를 꾀하였고, 이를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상과 현대문명’이란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 도서관과 유림에게 배포하였다.

2002년 12월에 산양회보를 창간한 이래 선생의 유고와 각종 강연내용과 선생에 대한 글, 본회의 활동을 수록하여 연 6천부를 이 고장 유림들과 필암서원 방문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산양회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20여 년 동안 산양회보 40여 회를 발간하는데 편집주간인 김재수 현 회장님의 노고가 컸으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5. 춘추향제 참여

매년 음 2월과 8월 중정일에 행하는 향사 봉행시에 수백명의 회원들과 본손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로써 하서 선생의 유덕과 사상을 기리고 현창하며 인륜도덕을 드높이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본 회원들은 우리나라 대표 서원의 유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6. 하서선생에 관한 서책 발간 보급

본손 김병효가 지은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라는 책을 문정공 도유사였던 본손 김택수가 발행하였다.

특히 본손인 필자 김용숙이 500년 전의 고어로 하서선생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백년초해」를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하여, 수천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도 게재된 바 있었다. 또한 필자는 『하서김인후 선생의 천명도 연구』라는 책도 자비로 수천 부씩 발행하여, 전국 도서관과 유림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

7. 나오며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처참한 6·25전쟁 직후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산양계를 창립하여 고산양지의 정신을 이어 간 산양회원들의 숭고한 정신과 현재의 코로나19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서선생의 높은 도학과 절의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확산하는데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양회원 여러분들에게 높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확보를 통한 저변확대 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특히 장성군에서 거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우뚝 선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선생을 선비문화의 귀감으로 삼아 세계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비전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에 높은 지지를 보내며, 부디 큰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제고와 관광소득의 증대에도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산양회 학술강연 개최

전남대 김경호 교수 하서 혼맥과 학맥 강연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본회 학술강연이 2021년 11월 30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제한된 인원이 초청되어 열렸다.

2022년 정기총회에 이어서 열린 강연회에서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김경호 교수는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관계망과 호남학술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선의 유학이 혼맥이라는 관계망을 통해서 어떻게 진흥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독특한 발표였다. ‘감성유학’과 ‘울곡연구’의 전문가인 김경호 교수는 지금까지 호남유학이 기호학과와 학맥이 통한다는 통설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실상은 논의된 바 드물었는데, 울곡과 우계 성혼의 기호유학이 혼맥과 학맥을 통해서 호남유학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서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본회 김장수 이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과 덕계 오견(吳健) 연구>를 발표하였다. 덕계 오견이 하서 제자로 하서집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었기에 담양, 순창, 남원의 하서 인맥과 함양, 거창, 산청의 유학자들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근거를 살펴본 것이다.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사업’ 용역설계 경과보고회 개최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관계자 등 40여 명 참석

2022년 2월 23일(수) 장성군청 회의실에서 문정공 김성수 도유사, 김인수 전 도유사, 필암서원 관계자 10여 명과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담당국장, 장성문화원장, 장성향교 전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장성군이 100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한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사업’ 용역 설계 경과 보고회가 열렸다.

필암서원을 한국선비문화의 본원으로 삼아 세계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아래 하서와 관련된 필암서원과 하서묘소, 신도비, 통곡단, 어사리 등 관계된 모든 유무형의 소재를 재발굴 조명하여 선비문화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두 도유사의 발언에 이어 본 산양회 김용하 이사는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일찍이 “앞으로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유일한 길은 한국의 전통문화인 선비정신의 이념과 실천윤리”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내세울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브랜드화 하여 선점하려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청 실무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불여장성에 걸맞게 필암서원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

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큰 예산을 확보하신 유두석 군수님과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두석 군수님이 필암서원 르네상스를 실현하여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추진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위대한 하서선생이 현창되기를 기원했다.

**새 도집강에 선병국(전남),
김철수(전북), 송영래(충청) 추대**

이십여 년 가까이 필암서원을 위해 헌신해 오신 두하 정운염, 오산 오인균 두 원로 도집강님이 퇴임하셨다. 정운염 도집강님은 고령으로 출행이 어려우시고, 오인균 도집강님은 소천하셨다. 여기에 창강 정채호 도집강님이 사임하심으로써 세 분 도집강님을 새로이 추대하게 되었다.

전남도집강에는 선병국宣炳國 대계서원장이, 전북도집강에는 김철수金喆洙 고창향교 전교가, 충청도집강에는 송영래宋泳來 한의사님이 추대되었다.

이로써 본 서원 원장에 영산 박병호 학술원회원, 도집강에 선병국, 김철수, 송영래, 군집강에 박래호, 김한식, 김만원, 이충원으로 필암서원 임원진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정환담 이사 사임,
후임에 안동교安東教 교수**

만기가 된 정환담 이사가 사임하고, 그 후임에 안동교 교수가 추대되었다. 김재수, 박래호, 김장수, 김성, 김용하 이사는 재임되었다. 고달석, 김승규 감사도 재임되었다. 이번에 새 이사에 추대된 안동교 교수는 증조부이신 회봉晦峰 안규용安圭容장보께서 필암서원 산양계를 발족할 때 도유사를 맡아 산양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조부이신 안중선安鍾宣 장보께서는 필암서원 도유사를 역임하셨기에 평소 필암서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산양회 이사로 선임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이 고장의 대표적 젊은 한학자인 안동교 교수를 본회 이사로 모셨기에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산양회 긴급 이사회 열다

2021년 12월 17일 17시에 광주향교 건너편 사직명가 식당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갑자기 장성교육청에서 만기가 도래한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여 등기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환담 이사가 퇴임하고 안동교 교수를 새 이사로 추대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재임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박래호, 김장수, 이충원, 김성, 이충원, 기양수 이사와 고달석, 김승규 감사가 참석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중용 제32장 성지천덕 聖知天德 장章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이라야 능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운經綸할 수 있고, 천하의 대본大本을 세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化育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성至誠의 도를 실현하는 인물이 자신의 성실함을 도외시하고 무엇을 따로 의지하리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 중니의 지성한 모습이시여! 준준肫肫하시니 인仁 그 자체로다! 연연하시니 연淵 그 자체로다! 호호浩浩하시니 천天 그 자체로다! 만일 진실로 총명과 성지聖知를 구비하고 천덕天德에 통달한 자, 우리의 스승 중니가 아니라면 과연 그 누가 천지의 화육을 알아 소통시킬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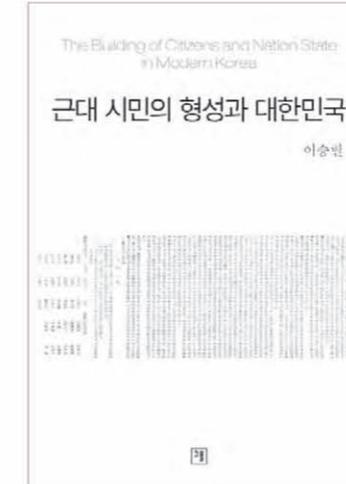
唯天下至誠，爲能經綸天下之大經，立天下之大本，知天地之化育。夫焉有所倚？

肫肫其仁！淵淵其淵！浩浩其天！

苟不固聰明聖知達天德者，其孰能知之？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342~343쪽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이승렬 지음

역사는, 분열될 때 반동화되었고 통합될 때 진보했다.

방대하고 오랜 세월의 노고가 묻어나는 이 책은 한국의 중도자유주의·점진주의·개혁적 민주주의의 기원을 통해 오늘의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 책은 그 동안 학계나 정치권의 주요한 역사인식, 민족과 반민족, 좌와 우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시야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일본 및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성공하게 된 배경을 밝힌 점도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1930년대 일본과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의 자치론과 점진주의에 대한 것도 새롭다.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역사를 함께 비교 검토한 작업은 매우 드물다. 우리 국사학계에도 큰 자극이 될 것 같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식 부르주아 혁명, 혹은 자유주의가 여러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 김동춘(성공회대학 사회과학부 교수)